

계시록 8장 재앙

이제 일곱 번째 인에 이르렀다. 일곱 번째 인에서는 일곱 나팔의 심판이 나오고, 나팔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나온다. 이 모든 것이 일곱 번째 인에 있다.

계시록 8:1-2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8:1)

고요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많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우리들도 침묵을 지키는 것이 최상이다. 고요함,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의 현상으로서 폭풍 전야의 두려움이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8:2)

어떤 사람들은 이 일곱 '천사'가 일곱 천사장이라고도 한다. 성경에는 미가엘만이 천사장으로 언급되어 있다(유 9절). 미가엘은 주요한 천사 가운데 하나이다. 가브리엘은 미가엘을 "군장 중의 하나"(단 10:13)라고 불렀다.

하나님 앞에 시위한 다른 한 천사는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던 사가랴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부르라고 한 천사이다. 사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 천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눅1:18-19)고 대답했다.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두 천사이다.

계시록 8:3-6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8:3-6)

이것은 하늘 나라의 광경이다. 여기에는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진 향이 담긴 금향로가 있다.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계시록에 있는 비유들이 매우 친숙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하다. 구약 시대에 금향로는 제사장이 성막으로 매일 들어가면서 사용했었다. 제사장은 제단에서 솟을 조금 떠서 이 작은 금향로에 집어넣고 거기에다 향을 조금 첨가한다. 향로의 연기가 피어오르면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 제단 앞에서 이 금향로를 흔든다. 피어오르는 향로의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를 가리킨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땅의 성막 제도와 관련된 이런 제사장의 행동들은 하늘 나라의 일에 대한 모형, 또는 본보기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계시록 8:2-6에서는 이 땅에 있었던 성막의 모형이 되었던 하늘의 광경이 나와 있는 것이다. 천사가 제단에서 솟을 받아 그것을 성도들의 기도인 향과 합하고 있다.

계시록 8:7-11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삼분의 일도 타서 사워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워더라(8:7)

첫째 나팔 심판은 땅과 땅에 있는 식물에 내려진다. 현재에도 식량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나팔 심판으로 인해서 식량 공급원인 땅의 삼분의 일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풀은 전멸되고 모든 수목의 삼분의 일도 전멸된다.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나무와 푸른 풀들은 타서 사라진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어지더라(8:8-9)

바다로 떨어지는 불의 큰 산이란 공해를 말하는 것 같다. 지구의 오염으로 나무들이 죽어가는데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다. 대기중에 있는 핵폭발로 생긴 스트론튬 90은 식물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생명을 위협한다. 그래서 핵무기의 대기중 시험 검사가 중단된 것이다. 만일 핵전쟁이 발발하면 부산물인 방사선 물질이 농작물과 땅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이다. 바다도 오염되어 삼분의 일 가량의 생물이 죽고, 삼분의 일 가량의 배가 파괴될 것이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썩이라 물들의 삼분의 일이 썩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8:10-11)

셋째 나팔 심판은 깨끗한 물 공급원에 내려진다. 강들과 깨끗한 물샘의 삼분의 일이 파괴된다. 깨끗한 물 공급원의 삼분의 일이 파괴되고 난 후 있을 갈증을 상상해보라.

계시록 8:12-13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삼분의 일과 달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침을 받아 그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니 낮 삼분의 일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라고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라도 하더라(8:12-13)

처음 네 천사들이 나팔을 불자 다른 한 천사가 나타나 하늘을 날아다니며 큰 소리로 말한다. “화, 화, 화”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증거이다.(마24:29)

네 번째 천사가 해와 달을 어둡게 만들어 해와 달의 삼분의 일만이 빛이 난다. 이것은 처음 세 가지 나팔 재앙의 결과로서 대기 중에 일어날 일인 것 같다.

남태평양에 있는 화산섬(Krakatua)이 분출했을 때 그 섬은 완전히 폭발되었다. 섬이 폭발하자 바닷물은 분화구 속으로 마구 밀려들어갔다. 실제로 그 때의 폭발 소리는 2,000마일(3,200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렸다. 섬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최소한 1입방마일(1600입방미터)의 물질이 대기 중으로 날아가 버린 이 거대한 폭발로 인해서 그 후 2년 동안 지구의 일몰은 먼지로 뿌연게 되었다.

땅과 바다, 그리고 깨끗한 물에 내려진 이 재앙들은 대기 중에도 내려져서 해와 달을 어둡게 만들고 달을 핏빛으로 물들일 것이다.